

---

# 민주시민교육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

2021년 12월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

 구로구

# 목차

## I. 서장

1. 개요 / 1
2. 추진과정 / 2

## II. 연구모임 결과

### 1. 논의결과(7회)

- 1) 1차 논의: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초논의 / 6
- 2) 2차 논의: 연구를 위한 주제 후보군 도출 / 7
- 3) 3차 논의: 연구주제 선정,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8
- 4) 4차 논의: 내용으로서 ‘민주’, 무엇이 ‘시민’인가 / 9
- 5) 5차 논의: 민주시민교육 ‘형식·방법’, 민주시민교육 ‘주체’ / 11
- 6) 6차 논의: 논의의 종합 / 12
- 7) 7차 논의: 연구 프로젝트 갈무리 / 14

### 2. 학습결과(3회)

- 1) 1차 학습: 민주시민교육의 동향 / 15
- 2) 2차 학습: 민주시민교육 정책 사례 / 15
- 3) 3차 학습: 민주시민교육 해외동향과 실천사례 / 16

### 3.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제안 / 18

붙임 1. 구로 민주시민교육이 지나온 길과 그 다음을 위해(반예모) / 20

붙임 2. 민주시민교육 관점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훑어보기(조진희) / 29

붙임 3. 민주시민교육 추천 도서 10선(조철민) / 43

# I. 서장

## 1. 개요

### 1) 추진근거

-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 나. 2020~2022 구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2020.9.29)

### 2) 추진사항

가. 사업기간: 2021년 4월 21일~11월 2일

나. 사업목표

- 구로주민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 운영을 통하여, 구로주민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 수립
-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2회 진행을 통한 연구 용역과의 연계 및 주민 의견 수렴

다. 사업내용

- 총10회의 연구모임 운영: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3회) 과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7회) 진행
- 2020 민주시민교육 워킹그룹<sup>1)</sup>과 연계해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가 함께 진행

라. 연구모임 구성

구분	이름	소속	비고
1	박지영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	2020 민주시민교육 워킹
2	반예모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	2020 민주시민교육 워킹
3	서해순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	2020 민주시민교육 워킹
4	조진희	천왕초등학교	-
5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 연구소	-
6	황현실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

1)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성된 워킹그룹.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기획단 운영', '청소년 민주시민교실',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등 진행됨.

마. 연구모임 보고서 작성

- 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 보고서 수록내용: 연구모임 개요, 학습과 논의내용, 참가자 에세이(희망자 3인)

## 2. 추진과정

### 1) 논의(7회)

가. 1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4월 21일(목) 10:00 /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 논의내용
  - 구성원 상호인사, 사업에 대한 안내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학습주제 기초 협의
  - 향후 연구모임 추진일정 협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나. 2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5월 28일(금) 15:00 / 구로구청
- 논의내용
  - 1차 학습내용 회고와 이에 기반한 연구주제 도출과정 안내
  - 연구주제 도출을 위한 자유토론
- 운영에 관한 논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다. 3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6월 23일(수) 15:00 /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 논의내용
  - 연구 프로젝트 일정 및 내용 재확인
  - 연구 프로젝트 최종과제 및 방향 확정

- 연구 프로젝트 최종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논의
- 운영에 관한 논의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논의
  - 제3차 학습은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해 연구모임 구성원 외 다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라. 4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8월 27일(금) 15:00 / 비대면 화상회의
- 논의내용
  - 향후 남은 일정 수립 논의
  - 세부 연구주제1: 내용으로서 ‘민주’
  - 세부 연구주제2: 누가 ‘시민’ 인가
- 운영에 관한 논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마. 5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24일(금) 10:00 / 비대면 화상회의
- 논의내용
  - 세부 연구주제1: 민주시민교육의 형식·방법
  - 세부 연구주제2: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 운영에 관한 논의
  - 최종보고서 및 개인 에세이 작성에 관한 협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바. 6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10월 5일(화) 15:00 / 비대면 화상회의
- 논의내용
  - 종합논의1: 민주시민교육의 이유(필요성)
  - 종합논의2: 내용으로서 ‘민주’

- 종합논의3: 시민이란
- 종합논의4: 교육방법
- 종합논의5: 교육주체
- 운영에 관한 협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 사. 7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11월 2일(화) 15:00 / 구로구청
- 논의내용
  - 개인 에세이 및 최종 보고서 검토
  - 최종 보고서 활용방안
- 운영에 관한 논의
  - 보고서 제작 일정 협의

## 2) 학습(3회)

#### 가. 1차 학습

- 일시/장소: 2021년 5월 12(수) 15:00 / 구로구청
- 학습내용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 민주시민교육의 동향과 이슈
- 운영에 관한 논의
  -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비대면 화상교육 진행에 관한 논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 나. 2차 학습

- 일시/장소: 2021년 6월 9일(수) 15:00 /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 학습내용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정책사업 운영사례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사례
  - 질의응답

- 운영에 관한 논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 다. 3차 학습

- 일시/장소: 2021년 7월 7일(수) 15:00 /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화상회의
- 학습내용
  - 해외 민주시민교육 동향
  - 민주시민 실천사례
  - 질의응답
- 운영에 관한 논의
  - 차기 모임 내용과 일정 협의

### 3) 기타

#### 가.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 참여

- 설문조사 참여
  -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참여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2021년 10월 1일(금) 15:00 / 비대면 화상회의
  -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참석해 보고 경청 및 질의응답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2021년 10월 13일(수) 15:00 / 비대면 화상회의
  -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참석해 보고 경청 및 질의응답

#### 나.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사업 협의

-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추진 협의
- 연구모임 구성원 중 일부가 참석해 공동사업 추진에 관해 협의했지만, 구로구는 이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기로 함
- 공동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지역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의 단초 마련

## Ⅱ. 연구모임 결과

### 1. 논의결과(7회)

#### 1) 1차 논의: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초논의

##### 가. 필요한 학습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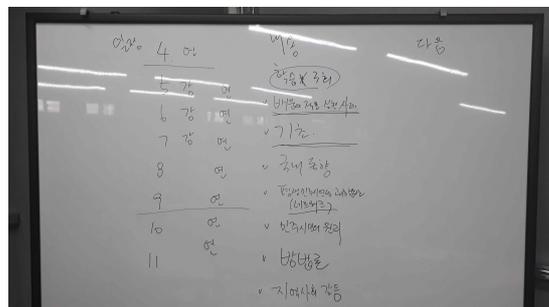
- 배움의 적용
- 국내 민주시민교육 동향
- 민주시민교육 기초 교육
-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 평생민주시민성(네트워크)
- 민주시민 원리
- 지역사회 갈등 해소 연계 교육

##### 나. 연구주제 도출

- 차기 모임에서 구로형 실천적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과제목록을 연구모임원이 함께 도출
- 이후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연구모임 진행기로 함

##### 다. 보고서 작성 및 기타

- 연구모임 활동 정리 및 구로형 실천적 민주시민교육 방안 수립
- 연구모임 구성원 중 희망자에 한해 개별 에세이 작성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에게 유익한 도서 추천 요망



## 2) 2차 논의: 연구를 위한 주제 후보군 도출

### 가. 과정

- 자유롭게 연구주제 아이디어들을 제출하고, 이에 관한 자유토론
-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현장주체, 물적자원, 내용 및 형식, 협치 네트워크, 지향,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학교, 알림(홍보) 등 8가지 주제어로 분류

주제어	논의내용
현장 주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인력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실무단이 필요.
물적자원	돈, 자금,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만남의 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내용 및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 중심적 교육방식</li> <li>- 교육 대상별 세분화된 커리큘럼</li> <li>- 단기교육과정(원데이 클래스 등)</li> <li>- 민주시민교육 방식(방법론) 정립</li> </ul>
협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관과 학의 협조 필요</li> <li>- 민주시민교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심 집단(조직) 필요</li> <li>- 민주시민교육 관련 소모임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li> </ul>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성 필요</li> <li>- 민주시민교육 주체의 다양성</li> <li>- 지역문제 해결</li> <li>-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li> <li>- 변화의 전파(나 → 마을)</li> </ul>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민주시민교육 방향 및 목적과 구로만의 민주시민교육 정의 필요
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개방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 공간의 장소로 학교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알림(홍보)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찾기 쉽게 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
기타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이란 단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하므로 [민주시민학습]과 같은 대안이 필요함



### 3) 3차 논의: 연구주제 선정,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가. 연구주제 선정

- 현장주체, 물적자원, 내용 및 형식, 협치 네트워크, 지향,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학교, 알림(홍보) 등 8개 주제어 중 이후 다룰 주제 선정
- 선정주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 나. 선정주제의 세부과제 도출

- 구성원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위한 세부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함
- 제안된 아이디어들에 관한 자유토론 후 아이디어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이유(필요성), 내용으로서 ‘민주’, 시민이란, 교육방법, 교육주체 등 6가지 주제어로 분류함

주제어	논의내용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히 정립해야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
내용으로서 ‘민주’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 구성된 교육임. 그래서 ‘민주’와 ‘시민’을 분리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논의함. - 내용으로서 ‘민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해야 함. - 구체화/실생활 포함(실천 가능)/재미있는(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성)/연관성
‘시민’은 누구인가?	구민으로서 시민성(덕목)을 갖춘 자
어떤 ‘교육·학습’이 필요한가?	- 참여자의 니즈를 찾아서, 교육·학습방식을 수립해야 함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숙의·토론·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 연령별로 다른 교육 등 참여자 눈높이 교육이 필요함
무엇이 ‘민주시민교육’?	- 구로민주시민교육 정의에 대한 오픈형 설문조사 및 공론장 진행 제안 -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정의에 대해 합의가 필요 -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무엇이다’와 같은 정의가 필요
민주시민교육 주제	- 민주시민교육 현장 연구자 모임 - 협치 네트워크

다. ‘필요성’ 주제 논의

- 특정 개인의 강한 의견으로 필요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
- 세대 간 갈등이나, 권력구조의 하위자의 의견 미반영 등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
-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게 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고,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기회 방법을 알려, 시민이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됨



4) 4차 논의: 내용으로서 ‘민주’, 무엇이 ‘시민’ 인가

가. 내용으로서 ‘민주’

-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

주제어	논의내용
민주시민 상 고찰	우리 시대의 민주시민을 보여주어, 민주시민의 상 고찰
민주주의 정의 공통점 찾기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의는 다르지만, 공통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의 찾기
주권의식 자각	본인 스스로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끔 돕기
권리와 책임	학생으로서의 권리, 회사원으로서의 권리 등 생애주기별 권리는 달라짐. 또한 권리에 따른 책임이 수반됨. 이를 알려주는 내용 필요
선택의 자유, 타인의 선택 존중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선택에 관련된 여건과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의 교육
민주시민교육 = 활동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전달이 아닌, 추후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 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과정 필요

○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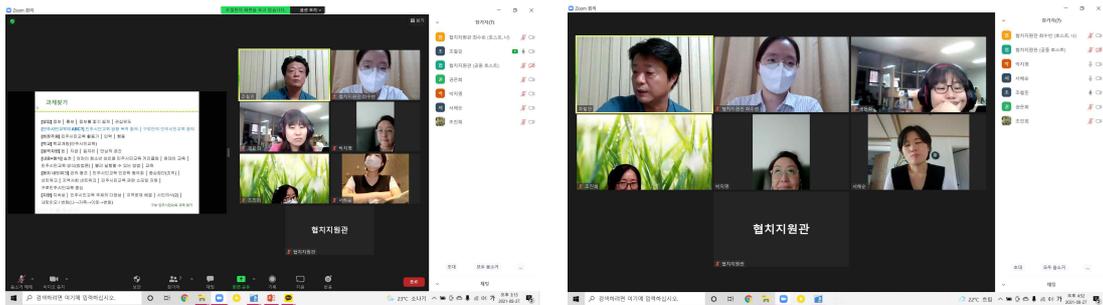
주제어	논의내용
선택의 자유	-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목록으로 정리한 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의 요인 등을 분석 - 영화 속 등장인물의 선택의 순간에 대한 토론
쟁점 토론	우리사회 최근 쟁점, 본인이 접한 상황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강의

나. 무엇이 ‘시민’ 인가

○ 참여하는 시민

○ 구민으로서 덕목을 갖춘 자

- 다양성을 함께하는, 공존하는 구로시민
- 단점을 받아들이고 장점으로 승화하는, 자기 긍정 구로시민
- 구로의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 타인을 사랑하는, (박애) 구로 시민
- 참여하는 시민(참여하는 시민을 위해선, 참여의 권리 보장,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5) 5차 논의: 민주시민교육 ‘형식·방법’, 민주시민교육 ‘주체’

### 가. 민주시민교육 형식/방법

주제어	논의내용
교육방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의가 중요함</li> <li>- 따라서, ‘자발성’, ‘재미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실생활과 접목된’ 교육형식이 필요</li> </ul>
교육의 원칙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사회이슈를 다룰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있던 경우가 있음</li> <li>-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원칙이 필요</li> <li>* 교화 금지 원칙, 논쟁성 재현원칙, 이해 상관성 원칙</li> </ul>
사례밀착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게, 생활 속 사례 활용 교육이 필요</li> <li>- 그렇지만, 강의자가 대상별 사례를 매번 발굴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제안됨</li> </ul>
민주시민교육 공동 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학교재 같은 경우, 성공한 CEO의 경험을 정리한 경우 많음. 이처럼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매커니즘’ 발굴할 필요가 있음</li> </ul>
캠페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은 실천형 교육이기에, 캠페인 같은 활동이 필요</li> <li>- 대표적으로, 가족회의 캠페인이 제안됨</li> </ul>
민주시민교육 범교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교과목으로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li> <li>-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이 필요하나,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교과에서나 필요한 교육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li> </ul>

### 나. 민주시민교육 ‘주체’

주제어	논의내용
거버넌스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으로의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기구 필요성이 제기됨</li> <li>- 그렇지만, 사업화로만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함</li> <li>- 민주시민교육 주관이 아닌 전반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함</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사회, 개인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li> <li>- 단,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약하기에, 거버넌스 기구와 상호 보완하는 추진 체계가 필요함</li> </ul>
구로구 주체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 범교과와 학교자치활동으로 진행되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약이 많고 자율성이 적음</li> <li>- 개인 : 민주시민교육 강의 진행. 소규모 단위의 네트워크 존재</li> <li>- 전문 교육기관 및 중심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의논할 자리가 적은 상황</li> </ul>
민관학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학의 각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폼이 필요함</li> <li>- 플랫폼에 참여통로의 다양화 및 개방성 필요</li> </ul>



## 6) 6차 논의: 논의의 종합

### 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 논의의 회고

- 의사소통과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 차이와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갈등
- 사고의 확장, 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성 존중,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

#### ○ 덧붙이는 의견

-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 타인의 권리와 더불어 나의 권리 역시 존중받기 위하여

### 나. 내용으로서 ‘민주’

#### ○ 논의의 회고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 속에서 공통성 찾기 △주권의식(삶과 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 △권리(자유)와 책임(공동체)
- 민주시민교육 과정: △자기선택, 자기결정: 인생 선택의 순간 돌아보기 △쟁점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 이해하기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인가(예시를 보여주기)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

#### ○ 덧붙이는 의견

- 포용(관용) 필요함. 권력구조와 소속집단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함

다. ‘시민’ 이란

○ 논의의 회고

- 시민상: △참여하는 시민 △다양성과 존중 △지역사회 주인의식 △타인을 사랑하는(박애)
-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건 필요

○ 덧붙이는 의견 없음

라. ‘교육’ 방법

○ 논의의 회고

- 합의된 교육원칙 필요
- 교육방법: △참여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교육(자발성, 동기부여) △실생활과 접목된 교육 △사례기반 교육(생활 속), 사례의 공동 발굴·개발작업 △실천형 교육: 캠페인, 가족회의 등 △모든 교과/분야 속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 덧붙이는 의견

- 민주시민교육 주체인 교육자와 공무원에게도 교육 필요
- 서로 다른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필요(지속적 의견교류의 장)

마. 교육주체

○ 논의의 회고

- 구로구 현황: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이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중심주체 형성 필요
- 거버넌스 기구: 직접교육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
-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주체 연결, 거버넌스 기구와 상호보완
- 민관학 플랫폼: 학교, 지역사회, 구청의 연결

○ 덧붙이는 의견

- 각 주체별 역할 구체화 필요
- ‘주체’의 정의가 필요함. 개인도 주체인데,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구로구 전체 민주시민교육 지향점을 고민하는 중심주체라는 뜻에서 ‘주체’를 정의함



## 7) 7차 논의: 연구 프로젝트 갈무리

### 가. 개인 에세이 검토

- ‘민주시민교육 관점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훑어보기’, ‘구로민주시민의 활동 이야기(가칭)’ 에세이에 대해 편집 및 덧붙이는 의견이 논의됨

### 나. 본 보고서 검토

- 민주시민교육 워킹 설명을 위해 각주 추가
- 제언 추가 작성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22 심화연구 제안 △구의 지원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주체와의 지속적 논의 필요 △관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민주시민교육 주체 네트워크 생성

### 다. 최종 보고서 활용방안

-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의회 등에 배부 혹은 게재방안 제안됨



## 2. 학습결과(3회)

### 1) 1차 학습: 민주시민교육의 동향

#### 가. 학습내용1: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 민주화 이전의 제도 안과 밖의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제도화를 중심으로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및 정책 현황
- 민주시민교육 관련 중앙정부, 시민사회 동향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 나. 학습내용2: 동향과 이슈

- 내용: 삶의 장면들과 맞닿은 교육
- 방식: 학습자에게 맞는 방식
- 확장: 참여와 협치 속 교육들
- 합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
- 협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 2) 2차 학습: 민주시민교육 정책 사례

#### 가. 학습내용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정책사업 운영사례

- 2021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정책사업 운영방향
- 시민참여촉진: 시민대화모임 지원, 공론 활성화 지원
- 시민교육 활동 강화: 시민학습 프로그램 추진,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정책 중심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 저변확대: 대외협력, 홍보 및 아카이브, 생활 속 민주주의 기자단(4기)

#### 나. 학습주제2: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사례

- 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결성 과정과 소개
- 광명민주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관계
- 플랫폼 구축 및 교육주체 역량강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 민주시민교육의 촉진 및 확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시민학습 활성화와 시민역량 강화: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및 시민의 사회 참여 촉진 지원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를 세우자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엮어 내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시민성 발현의 장을 만들자

#### 다. 질의응답

- 민주시민교육센터와 현장과의 연계현황, 민주시민교육 강사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 과정,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 개인의 참여기회 제한 등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이해 도모



### 3) 3차 학습: 민주시민교육 해외동향과 실천사례

#### 가. 학습주제1: 해외 민주시민교육 동향

- 독일 정치교육의 흐름과 시민상
- 스웨덴 대중교육의 흐름과 시민상
- 프랑스 시민성을 향한 교육의 흐름과 시민상
- 영국 시민성교육의 흐름과 시민상
- 미국 시민교육의 흐름과 시민상

○ 한국에의 시사점

나. 학습주제2: 민주시민 실천사례

- 사회참여: 대항, 자율, 자선, 해결 4가지 유형의 활동들
- 정치참여: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참여활동, 직접민주주의에서의 참여, 참여 민주주의에서의 참여활동

다. 질의응답

- 교과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된 해외 사례 질문



### 3.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 제안

<p><b>필요성</b></p>	<p>=이유: 의사소통·토론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 차이와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갈등          =효과: △사고의 확장 △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성 존중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 확립 △타인의 권리와 더불어 나의 권리 역시 존중</p>
<p><b>민주 (내용)</b></p>	<p>=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 속에서 공통성 찾기          =주권의식(삶과 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          =권리(자유)와 책임(공동체)          =자기선택, 자기결정: 인생 선택의 순간 돌아보기          =쟁점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 이해하기          =어떤사람이 민주시민인가(예시를 보여주기)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          =포용(관용): 권력구조와 소속집단을 넘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p>
<p><b>시민 (시민상)</b></p>	<p>=참여하는 시민          =다양성과 공존          =지역사회 주인의식          =타인을 사랑하는(박애)          =이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조건 필요</p>
<p><b>교육 (방법·제도)</b></p>	<p>=참여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교육(자발성, 동기부여)          =실생활과 접목된 교육          =사례기반 교육(생활속), 사례의 공동 발굴·개발 작업          =실천형 교육: 캠페인, 가족회의 등          =합의된 교육원칙 필요          =모든 교과/분야 속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주체인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교육 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리 마련 필요</p>
<p><b>교육주체</b></p>	<p>=교육주체란 구로구 전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 그룹을 의미함          =구로구 현황: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음. 중심주체 형성 필요          =거버넌스 기구 필요: 직접교육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주체 연결, 거버넌스 기구와 상호보완          =민관학플랫폼: 학교, 지역사회, 구청의 연결          =각 주체별 역할 구체화 필요</p>

본 연구 프로젝트는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제안할 목표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내용으로서의 민주 △시민상 △교육방법 및 제도 △교육 주체를 위와 같이 논의하였다. 구로구는 본 보고서를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022년엔 △민관학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형성 △관내 현장주체 역량강화 지원 △현장주체와의 논의를 통한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민주시민교육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붙임 1.

### 구로 민주시민교육이 지나온 길과 그 다음을 위해

반예모(구로민주시민교육연구소)

#### 0. 용어 정리

- 1 권선숙대표, 반예모대표라 부르는 이유  
: 민주시민은 모두가 주인이다. 이를 명확히 표현해줌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도록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는 물론이고, 현재 내가 운영 중인 모임은 모두를 대표라고 부른다. 물론, 운영방식에서도 대표가 갖는 모든 형식을 취한다.
- 2 2019년 '민주시민워킹준비' 모임  
: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 있거나 관련 있는 주민들과 관이 모여서 민주주의 기본 역량을 쌓아온 모임.
- 3 2020년 민주시민워킹  
: 구로의 청소년, 성인대상 민주시민교육과 구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모임.
- 4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 구로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기초적인 구로구 자치법규이다. 민주시민워킹활동 중 타지역의 조례 및 사례를 분석하여 구로구에 맞게 수정 제안하였다. 이후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구의원과 함께 조례 발의 및 제정을 하였다. 현재 구로구의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5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  
: 민주시민워킹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2021년 결성한 모임. 구로에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하고 만들어 온 권선숙 대표를 포함하여 조례제정 및 구로의 여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역사와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21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사업과 2021년 민주시민연구프로젝트 두 사업에도 함께 함으로 구로의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선숙대표, 반예모대표, 노자대표, 서해순대표가 활동 중이다.
- 6 2021년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연구프로젝트  
: 2020민주시민워킹 구성원과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구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수립'하고자 모였다. 2020년 제정된 구로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보고서에 해당 개별에세이가 포함된다.
- 7 구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  
: 2020년 제정된 구로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로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 타지역의 민주시민전문가들에게 연구를 맡긴 사업이다. 민주시민포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구로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 8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사업  
: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민시넷)가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한 사업. 2021년 말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동구에서 포럼이 진행되었다.

\* 이 개별에세이에 이름이 언급된 모든 분들에게 내용확인 및 이름 사용을 허락받았다.

## 1. 들어가기 전에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로 공동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시민연구자 개인이 작성한 개별에세이도 함께 포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개별에세이에 구로에 민주시민교육이 싹트고, 민주시민교육 연구프로젝트(시민연구모임)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를 나의 눈과 말로 남긴다.

이 글을 읽고, 어쩌다, 구로에 민주시민교육이 반짝이게 되었는지, 무엇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구로에서 해왔었는지, 어떻게, 구로에 민주시민교육 연구프로젝트까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 이후 구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음이 시작될 때는 그동안의 일과 연결되어 더욱 두터워진 모습으로 진행이 되길 바란다.

## 2. 구로시민 권선숙 대표와 2019 민주시민워킹 준비모임, 2020 민주시민워킹 그리고 2021 구로민주시민교육연구소

2017년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러 온라인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중 나는 권선숙대표가 전하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에 유독 끌렸었다. 그렇게 권대표가 안내하고 전해주는 대로, 나는 광명으로, 관악구로 민주시민교육을 배우러 다녔다. 그런 나에게 권대표는 자신도 광명과 중구 등 타 지역에서 배웠었다고, 이런 것들이 구로에는 없다면 계속 안타까워했다.

”그러면 안 된다. 구로에 있어야 한다.”

당시 권대표가 자주 하던 이 말을 나는 사실 개의치 않았다. ‘멀지도 않은데 좋은 거라면 내가 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우리 마을 누군가와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그들도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나는 구로에 꼭 있어야 한다는 권대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저절로 생길 리는 없다.

2019년 어느 날, 권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잘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구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함께 하자고 했다.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권대표는 함께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결국 나는 합류했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제로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민주시민워킹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로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안내하고 공부하며 민주주의 역량을 함께 키웠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권선숙 대표 주도하에 구로 민주시민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우리는 ①민주시민양성 ②민주주의 가치 확산 ③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2020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성인 민주시민교육 △두 번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온전히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 주권, 헌법 등에 대한 강의를 기획(주로 권선숙대표가)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고, 마을교육기관과 온마을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협의회 및 중학교에 민주시민교육도 개설, 진행하였다.

또한 틈틈이 모여 조례제정을 준비했었는데 그 공식적인 일정으로 △1강 :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제정의 의의 △2강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의회의 역할 △3강 : 구로민주시민교육조례 내용 및 실현 △4강 : 조례관련 행정 절차 등 확인 △5강 : 조례 워크숍 & 조례 연구 모임 몇 차례 △6강 : 조례 간담회(2020년 7월 6일)를 열게 된다. 이후 몇 차례 조례 내용 수정 과정을 거쳐 2020년 9월 김영\*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제 296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민주시민워킹그룹을 2021년엔 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여 2020년 겨울, 우리모임은 해산된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시 모여 구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함께하기로 의기투합했고, 2020년 겨울 민들의 모임인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민주주

의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 후 2021년 초, 협치의 사업으로 ‘구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연구프로젝트가 새로 계획되었고, 2020년 민주시민워킹구성원들도 연구자로 함께 참여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 이에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 5인 중 4인이 참여하였고, 도중에 정선영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어 3인이 활동했다.

구로민주시민교육 연구소가 2021년 해온 활동은 위 연구활동을 포함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구로 민주시민교육 시민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 연구하기(노자대표, 반예모대표, 서해순대표) △둘째, 구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용역 연구 및 조례의 실행과 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여하기(권선숙대표, 노자대표, 서해순대표) △셋째, 삶을 가꾸는 캠페이너 모집, 연구, 활동하기(권선숙대표, 노자대표, 반예모대표, 서해순대표) △넷째, 삶을 가꾸는 민주주의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를 쉽게 알리고 네트워크 형성하기(노자대표, 반예모대표, 서해순대표)

2019년 민주시민워킹준비모임은 권선숙대표가 주로 기획하였으며, 2020년 민주시민워킹 활동 의 강사들(홍윤\*님, 서원\*님, 김용\*님 등)과 강좌기획, 섭외 역시 권대표가 주로 맡았다. 조례 관련해서는 권대표를 포함하여 노자대표, 서해순대표, 정선영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름을 함께 쓴 것은 각 활동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

### 3. 구로시민 반예모 대표가 기록하는 2021년 구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그리고 다음

2020년 구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에 진행된 사업 중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래 두 개다. 첫째는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로에 알맞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로 꾸려서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 시민연구모임원들이 이들의 사업 중,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 용역연구사업 연구원들은 구로구 주민들이 아니라서 주민과 구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을 텐데, 아쉽게도 연구 활동이 수월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다. 이에 워킹대표였던 권선숙대표가 때론 조사원으로

때론 연결자로 활동을 도왔다고 알고 있다. 7월에 <구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포럼을 열어 구로주민들이 참여, 의견을 함께 모으는 시간을 가졌었다.

10월에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 나는 참석하지 못해서 자료를 받아 읽어보았다. 중간 보고서를 보고 놀랐던 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민주시민에 관심 있는)가 들어오고 해 왔던 말들과 이렇게 많이 일치할까 하는 것이다. 추측해 보건대,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생소한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답하거나 만남에 응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하다 보니 이미 관심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데이터를 얻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구로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한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연구 영역은 민주주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제안하자면, 설문의 제목 및 질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민주주의는 용어일 뿐이다. 민주주의 설문은 삶과 연결된 질문으로 진행해야한다. )

어쨌든 2021년 11월 현재 용역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고, 웹파일로는 받을 수 없지만 협치에 요청하여 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른 기회에 최종보고서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둘째는 구로주민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연구모임이다. ‘구로주민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 수립’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2020년 민주시민교육워킹 구성원,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 6인이 활동했다. 처음 나는 함께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용역연구와는 달리 구로주민들 중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름의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연구모임이라는 말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삶과 맞닿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구로를 위해 내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습한 것, 논의한 내용은 위 공동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는 생략하고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중간에 새로 생긴 사건들. 특히 내가 꺼내어 올렸던 문제와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해 쓴 이후, 전체적인 소감을 쓸 예정이다.

2021년 4월 21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11월 2일 10번째 모임까지의 활동. 첫날, 우리

활동의 결과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성하면 어떨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 5월 28일 2차 논의 날, 멘토로 활동하시는 조철민 선생님(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다)이 개별에세이를 최종보고서에 함께 넣겠다는 답을 주셨고, 그에 동의한 나와 조진희 선생님이 개별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이다. 4차 논의 이후에 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내가 꺼낸 이야기는 공동보고서에서 빼고 개인보고서에 넣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개별보고서 요구도 낮선데 자신의 말을 공동연구보고서에 넣지 않겠다는 나의 더 낮선 제안. 함께 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불편함을 줘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모임답게 소통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답을 주셨다.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이었기에 나 역시 무척 놀랐던 일이라 꼭 기록하고 싶었다.

만약,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다른 주제의 모임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마 나는 제안조차 못하지 않았을까? 민주시민. 이걸 정말 꺼내어 눈에 보이게 하고, 이야기 나눌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또 했다. 어쨌든 내가 연구논의 중에 꺼낸 3가지 이야기는 공동연구결과보고서에서 삭제된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쓰이는, <반예모 대표가 내놓는 ‘구로주민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방안’>은 ①구로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내 탓이오’ ② 시민은 누구인가?: ‘민주시민의 향기’ ③민주시민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잘 싸워야 해’ 총 3가지다.

이 개별에세이의 목적을 ‘기록’으로 설정했으므로, 위 3가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따로 기록하길 원한 이유는 올해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2019년 2020년 민주시민워킹기간에 해온 것들과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끌어낸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제안은 워킹 때의 결과보다야 훨씬 다양해졌지만,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하며 기대했던 ‘구체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왜 수년간 같은 이야기와 과정이 반복될까를 고민 해본 결과 나름의 원인을 찾았는데, 그건 ‘그때와 지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멘토 조철민 선생님이 2019년부터 함께 해왔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 같다. 만약 권선숙대표가 지금 이 모임도 주도했다면 많이 달랐을 것 같다. 만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내가 그 문제를 꺼내어 연결시켰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후에 꾸려질 또 다른 민주시민교육의 모임들을 위해 이곳에 그간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남겨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개별에세이 자리가 내겐 꼭 필요했다. 이 개별에세이의 기록을 통해서 구로의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이 조금이라도 연결되길 바란다.

또 다른 그 반복의 원인은, 개인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이라고 합해버리는 방식에 있다고 본다. 구체성을 가지려면 자신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절절하게 고민하고 상세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삶의 결과를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순간 절실하게 고민하고 내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 구로시민들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구체성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내 생각, 네 생각을 구분하여 말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을 자신의 개별보고서에 쓰기>를 제안하고 올해 실천해 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목적대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어야 하는 ‘내 탓이오’ ‘민주시민의 향기’ ‘잘 싸워야 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다. 올해는 ‘기록, 개별보고서 쓰기, 내 생각을 우리로 합하지 않기’ 실험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그간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우선이라는 핑계를 대겠다. 하지만 내심 나의 이 기록과 얻어낸 것들, 그 과정 속에서 3가지를 모두 활용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민주시민교육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알아봐 주면 좋겠다.

2021년 또 다른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민시넷)에서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주체들과 공동으로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구로구의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었다. 구로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중심 주체가 없어서, 구로의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연구모임인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사정 등을 이유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 함께하기를 거절했었고 우리 시민연구모임 연구원 노자, 반예모, 서해순 3명이 참여하여 협의를 했었다. 논의 끝에 구로의 용역연구모임이 진행했던 7월 민주시민포럼과 겹치는 면이 많아서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동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을 위해 현재 내가 민시넷

단체톡방에 남아서 네트워크 형성 중이다.(조철민 선생님도 단체 카카오톡방에 있고 동대문구 포럼에 강의를 해주시는 등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주민의 삶과 연결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일’과 이 개별에세이에 담지 못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법, 제안’ 등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내어놓을까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길 소망한다.

#### 4. 마무리하며

개별보고서에 개인의 생각을 따로 담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내 탓이오’ ‘민주시민의 향기’ ‘잘 싸워야 해’라는 나의 생각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이것들이 꼭 내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고 뺏길까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고 싸워온 것은 아니다. 이 반복되는 연구와 추상적인 대안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진짜 전문가 시민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초짜 전문가시민인 내가 어설픈 것으로 그 길 한번 먼저 가봤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 다음엔 진짜 전문가시민연구자가 이곳에 와서 자신의 멋진 아이디어와 삶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뺏기거나 묻힐까 하는 걱정 없이, 응원 받고 협조 받으며 연구자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연구프로젝트 개별에세이를 마무리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다시 한 번 제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시민연구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되어 삶에 맞닿은 구체성을 띤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하자. △이를 위해 개별보고서를 써서 시민의 말을 시민이 직접 기록하자. △시민 모두가 기록하자(나의 이 기록이 진실에 가장 가까워지려면 함께 했던 모든 시민의 글을 합쳐야 한다.) △구체성을 위해서도 개인의 생각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합치지 말자. △더욱 멋진 대안을 얻고 싶으면 시민연구자의 권리를 처음부터 논의, 보장하자. △민주주의를 위한 설문을 할 때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쏙 빼고 묻자.

그리고 이런 길을 직접 보여준 권선숙 대표를 만난 것이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그 어떤 민주시민교육보다 가장 좋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권대표가 민과 관과 교육기관 등에 제안하고 설득하고 중재하고 싸우며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 진짜 배움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시민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민주시민의 향기가 나는 시민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 향기를 퍼뜨려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연구프로젝트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초대해 준 것에 무척이나 감사하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로 대우해 주려고 애써주었음을 잘 알고 있다. 어디에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 5. 끝으로

7월에 용역사업에서 진행했던 민주시민포럼에서 한 청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미 나와 주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민주시민교육이나 센터 등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조금 더 ‘연결된’, 조금 더 ‘구체적’인 ‘다음의 구로민주시민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다.

## 붙임 2.

### 민주시민교육 관점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훑어보기

- 한국, 프랑스,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진희(서울천왕초등학교 교사)

24년째 초등교사로 근무하면서 운이 좋게도 다른 나라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20년 교육부<sup>2)</sup>, 2021년 서울시 교육청<sup>3)</sup>에서 성공회대와 상지대에 위탁한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원으로 함께 일한 시간들이었다. 연구의 중심 주제는 외국과 한국의 교과서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일이었는데, 외국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국어, 사회, 도덕(시민도덕교육), 수학, 과학 교과서를 외국어를 전공하신 전문가 분들과의 협력 연구로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외국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2년간 한국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sup>4)</sup>에서 학교 안과 밖의 어린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육부, 교육청, 구청이 함께 어린이들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방안의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먼저 한국 어린이들이 배우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살펴보자.

2) 2020년에 수행한 교육부 연구의 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외(영·프·독) 초·중학교 교과서 비교 분석 -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이며, 연구 기관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이다.

3) 2021년에 수행한 서울시 교육청 연구의 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외 교과서 분석 -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이며, 연구 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4) 2020년 9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구로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례는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들어가며 : 유일한 민주시민교육 인정 교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는 국가에서 만든 즉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발간한 교과서는 없다. 대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10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인정 도서로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5~6학년』 2권이 있을 뿐이다.

요즘 학교에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반드시 모든 내용을 배워야 하는 금과옥조가 아니며 부분적으로 배우거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해도 되는 매체로 활용된다. 즉 교과서의 위상이 예전의 학교보다는 낮아졌으며 가르치는 학년과 교사에 따라서 활용의 범위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학생들이 그 과목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선하여 전문가들이 만든 것으로 교사가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든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가 없고 교육청들이 만든 인정 도서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가 시민교육에 소홀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 인증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5~6학년』 (이하 『민주시민』) 교과서는 민주시민교육 과목이 초등학교에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되었어도 정규 수업에서 비중있게 가르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정규 과목 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민주시민』 교과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에서도 드러난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과 연계하여 활용 △선택 교과로 편성하여 운영 △논술형-정의적 영역 평가 자료로 활용 △토론, 논술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 활용 △범교과 학습 주제로 활용 △계기 교육 자료로 활용 △학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 등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교과목과 연계하여 보조 교과서나 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없을 정도이다.

**<표 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5~6학년』 교과서 차례5)**

대단원		3~4학년	5~6학년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함께 결정해요	모두가 참여해요
	선거	누구를 뽑을까요?	내 힘으로 뽑아요
	미디어	생각을 전해요	믿을 만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인권과 평화	인권	우리는 소중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다양성	우리는 달라요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어요
	노동	즐겁게 일해요	사람들은 일을 해요
	평화	평화를 꿈꿔요	평화롭게 살아요
연대와 정의	연대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해요
	정의	공정하게 살아요	정의롭게 살아요
	안전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하게 살아요

5)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5~6학년』, (주)해냄에듀(2019.3.1.), 1~2쪽

<표 1>의 차례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와 선거, 인권과 다양성, 연대와 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연대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무한경쟁사회에서 자칫 잃을 수도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차별하지 않는 정의롭고 안전한 시민성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민주시민 교과서로만 배우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배운다면 더욱 어린이들의 시민성은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학교 시민교육 교과서,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사회 교과서 :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현안 교육

비교 분석한 교과서는 한국의 4학년 사회 교과서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단원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5~6학년 정치경제 교과서 ‘지역사회 정치’ 단원이었다. 우선 한국과 독일 교과서의 질문과 활동 지시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한국은 ‘~해 보자’는 제안으로 다소 추상적인데 반하여 독일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한 후에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한 후에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활동으로 안내하고 있다.

<표 2> 한국과 독일 교과서의 질문과 활동 지시문

한국 사회 교과서	독일 정치-경제 교과서
~을(~ 사례를) 알아봅시다. ~을(~ 방법을) 살펴봅시다. ~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 사진을 보고 설명하라. 내가 바라보는 ~에 체크하라. 해결방안을 쉽게 혹은 어렵게 다루는지 이야기하라. 의견을 추측하여 발표하라. ~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묘사하라.
~을 수집하고 분석해 봅시다. ~을 해결해 봅시다. ~ 방안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 사례를 찾아봅시다. ~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사진과 텍스트를 수집해 보라. 나와 지역사회는 무엇을 하는가 설명하라. 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 사안의 찬반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라. ~ 사안의 대안 몇 가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보라. 예, 아니오 상황의 이유는 어떠한가? 어떤 견해가 나를 설득시켰나 결정하라. 너의 판단은 무엇인지 짚, 모둠과 토의 토론하라. 너의 판단을 소개하고 다같이 토의 토론하라.

한편 한국의 교과서는 실제 사진보다 삽화나 가공한 사진이 많은 편이라 실제 삶을 반영하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두 교과서의 실제 사진들만을 분석해서 비교해 보았더니 <표 3>과 같았다. 대체로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어린이 청소년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성인들의 사안 중심이며, 독일은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진과 의제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정치의 주체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안과 활동이 교과서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

<표 3> 한국 사회 교과서와 독일 정치-경제 교과서 사진 분석

한국 사회 교과서	독일 정치-경제 교과서
1) 공청회 참여하기 2) 주민 회의에 참여하기 3) 시·도청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4) 서명 운동 하기 5)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6) 시민단체의 우리 농업 지키기 캠페인 7) 교사, 학생, 학부모 토론회(학생 참여) 8) 나눔 봉사하는 시민단체 활동 9)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	1) 스포츠 여가 시설 향유 2) 야외 수영장 시설 향유 3) 청소년 수련관 공간 향유 4) 도서관 향유 5) 소방관 자원봉사 6) 아동 및 청소년 정당 활동 7) Essen 야외 수영장 폐쇄와 Laura의 활동 8) 베를린 어린이 교육예산 촉구 시위 9) 도르트문트 어린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10) 레클링하우젠 어린이 청소년 활동

<그림 1>에서 보듯이 베를린 어린이들은 학교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도르트문트 어린이들은 인종차별과 혐오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학생들이 주인공인 이미지는 없으며 시민단체 교육 토론회 장면에서 “쾌적한 학교, 인권의 시작”이라는 현수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 일환으로 초등교육의 단계에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주제에서도 보듯이 어린이 청소년 스스로 지역과 정치의 주권자며 주체임을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 교과서는 일반적인 지역 주민 사안의 병렬적 나열과 예시를 반복하면서 어린이 청소년의 사안은 비가시화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범주에서 학생들과 학생들의 이해관계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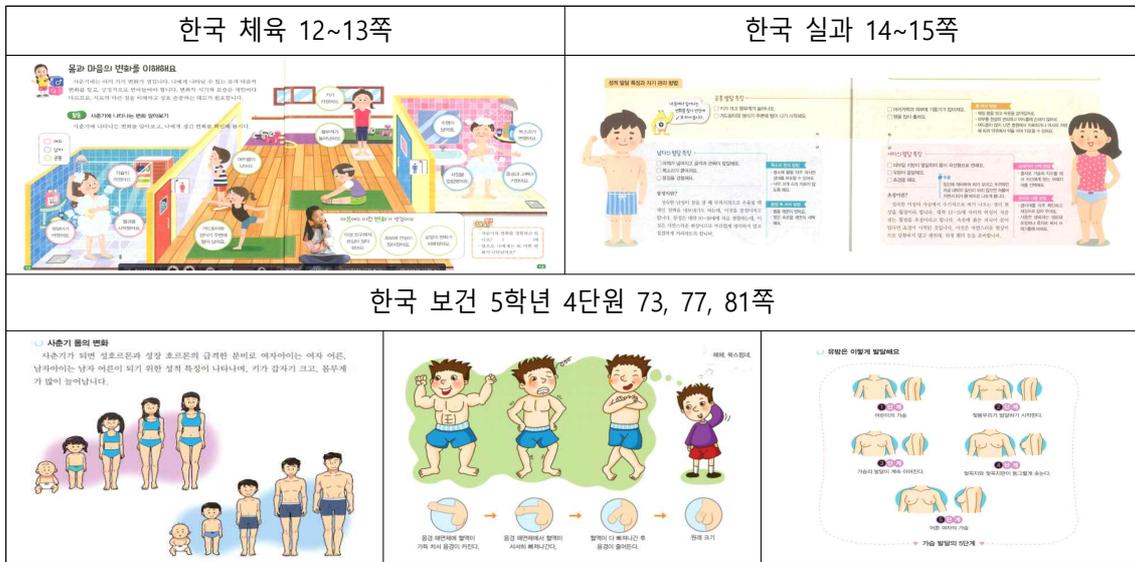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독일 교과서의 시민참여 사진 비교



독일·프랑스 과학 교과서 : 과학 시간에 성교육, 성평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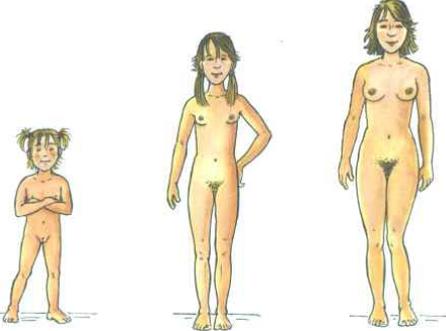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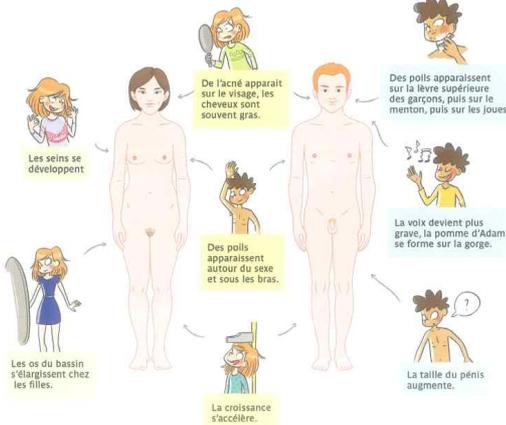
외국 교과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과학 시간에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점이었다. 한국도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은 인체 비례도 맞지 않고 속옷이나 목욕 거품으로 가려져 있어 신체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왜 온전하게 생식기관과 몸을 보여주지 않고 교과서에 13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을까? 촉법 소년 연령 논란에서도 보듯이 사회적으로 범죄 가해자로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중학생에서 낮추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식과 출생에 대한 교과서는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한국 5학년 체육, 실과, 보건 교과서의 사춘기 발달 이미지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는 삽화이지만 실제 몸과 흡사하고 성기, 가슴, 체모 등을 가리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부터 성인까지의 한국과 독일의 과정 그림을 비교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과학 과목에서는 졸업을 하는 6학년까지 인체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생식기관 즉 자신의 몸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가치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존중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함을 함께 배울 수 있다.

<그림 3> 독일과 프랑스 사춘기 신체 발달 이미지

독일 4학년 사물	프랑스 5학년 과학과 기술
	
<p>50~51쪽 “나의 신체는 변한다”</p> <p>(50쪽) 인간의 몸은 인생이 흘러감에 따라 변한다. 사춘기는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소녀에서 여성으로 되는 것이다.</p> <p>(51쪽) 대부분의 소년들은 12살에 사춘기를 시작한다. 목소리는 더 깊어지고 신체는 더 강해진다.</p> <p>(50~51쪽 공통) 그러나 언젠가 너는 멋지고 새로운 감정을 배우게 된다 : 사랑에 빠진다.</p>	<p>182쪽 “사춘기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p> <p>(여자) 가슴이 발달한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머리카락에 기름이 자주 낀다, 여자들의 경우 골반뼈가 성장한다, 성장 속도가 증가한다.</p> <p>(남자) 입술 상부, 턱, 그리고 볼에 털이 자란다, 목소리가 더욱 굵어지고 성대가 목에 형성된다, 성기의 크기가 커진다.</p>

독일과 프랑스 과학 교과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독일은 전형적인 여성/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란히 축구, 그림 그리기, 목공, 발레, 게임, 요리 등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토론하게 하면서 사회의 전형적인 성적 금기를 깨고자 노력한다. 프랑스는 여성/남성만의 장난감, 책, 만화 등은 없으며 성 고정관념의 리스트 만들기 활동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대학 교육에서도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도록 교과서에서부터 강렬한 이미지로 표상하도록 프랑스 교과서는 만들어졌고 이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5번 ‘성평등’과 연결한다.

<그림 4> 독일, 프랑스, 한국 교과서 성평등 관련 내용

독일	프랑스	한국
		
<p>성역할 고정관념 깨기(49쪽)          . 그림들을 보세요. 너가 보기에 전형적인 소녀와 전형적인 소년은 무엇인가? 토론해보세요.          2. 너는 어느 아이가 자신의 취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것을 경험해본 적 있는가? 여러 상황을 두고 역할 놀이를 해보세요.          3. 이전에 소녀와 소년에게 금지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해보세요.</p>	<p>‘평등은 장난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캠페인 포스터(187쪽)          1. 두 포스터를 묘사해보세요.          2. 각 포스터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리키고 있나요?          3. 이러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고발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4. 학급과 함께 장난감 카탈로그에서 여자, 남자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찾아 목록을 만들어보세요.</p>	<p>성 고정 관념 이미지⑥          (6학년 보건 102쪽)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쪽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 관념, 차별적인 태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즉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여성(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p>

프랑스 시민도덕교육 교과서 :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한국 교과서와 프랑스 시민도덕교육 교과서가 인간 존중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그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왜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차이와 다양성을 관용해야 한다 둘째, 차별을 거부하는 것이 존중이다”라고 하여 차별과 존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 6학년 새 보건 교과서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보강된 것이다. 69쪽에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의 리스트를 비교하고 “남녀 구분 없이 각자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로 서술하고 있는데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으로 성평등을 설명한다. 차별받은 역사에 근거하여 성평등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 강요하지 않는 관용’과 ‘차별을 거부하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존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존중은 관용하는 마음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교과서는 ‘불관용’이라는 개념을 더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프랑스 5학년 시민도덕교육 교과서의 ‘존중과 차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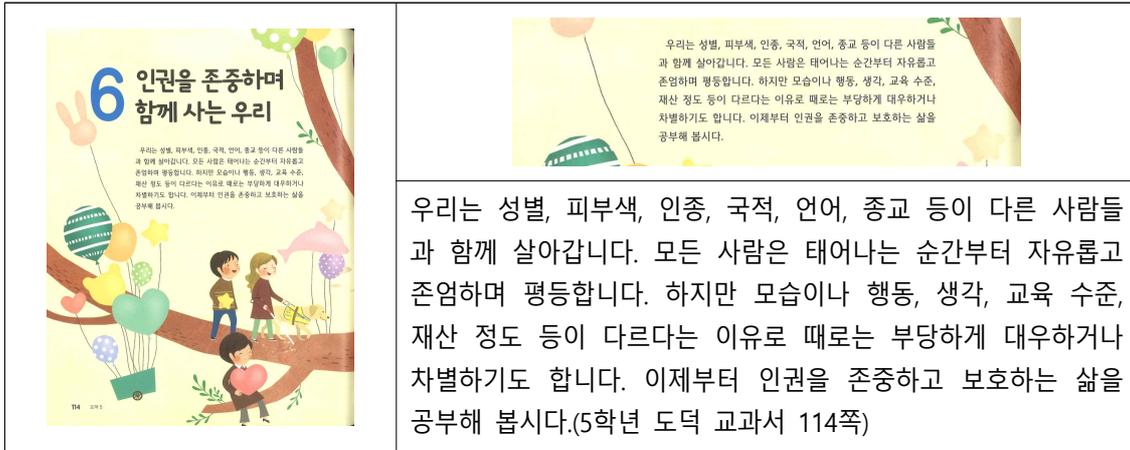
**프랑스 '7. 타인 존중하기 : ㉓ 존중과 차별' 단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하는 것이다. 출신, 외모, 성격, 재능, 취향, 의견, 믿음, 생활 방식,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 등이 다양한 차이가 있다. 관용은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하며 이들에게 우리의 관점, 삶의 양태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으로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불관용은 우리 외모, 출신, 선택 또는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불관용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학생이 우리와 똑같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나이 든 사람이 천천히 걷는다고 그를 조롱하며, 청소부를 직업 때문에 헐뜯고, 남자가 여자애들과 어울려 논다고 해서 비웃게 만들 수 있다.

불관용하는 것은 우월감, 멸시, 조롱, 비난, 비웃음 등의 마음임을 세세하게 예시를 들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존중하지 않는 불관용의 감정과 정서를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관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불관용한 생각이나 행동을 예로 들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즉 프랑스 교과서는 불관용과 존중하지 않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존중의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과서의 경우 존중해야 하는 이유,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서술이다. 5학년 도덕과 6단원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의 글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림 5> 한국 도덕 교과서의 ‘존중’ 서술 부분



한국 4학년 도덕 교과서는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서술을 채택하는데, 5~6학년 교과서는 이보다는 진전된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소중하고 존엄한데 차별하는지, 현실에 존재하는 존엄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사고까지 확장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과서는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나와 다르지만 ‘톨레랑스’<sup>7)</sup> 정신을 함양하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불관용하려는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반성적 성찰까지 어린이들의 사고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의 설명 방식은 민주시민 인정 교과서 또한 비슷한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3~4학년 인정 교과서는 5학년 국정 교과서와 같이 ‘천부인권론’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인권 효용론을 반복하고 있다. 5~6학년 인정 교과서 또한 소중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더 낫고 가치 있는 삶을 서술하고 있다.

7) 톨레랑스(tolerance, 관용, 寬容) : 타인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종교에 대한 자유 개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피부 색, 신체, 종교, 사상, 성별 등의 여러 차이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톨레랑스는 관용의 정신을 말한다. 자신과는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레 인정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관용은 처음 종교에 대한 자유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종교를 거부하거나 배격하기 쉽다. 하지만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정신이 생겨났으며, 이후 이어진 시민혁명에 의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피부 색깔, 신체, 종교, 사상, 성 등 여러 차이에 대해서 차별이나 무관심이 아닌, 서로 다른 점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을 말한다.

- 출처 :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40ha830a16>

<표 5> 한국 민주시민 인정 교과서 “2. 인권과 평화” 단원 서술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5~6학년
<p>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어린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보호해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2-4. 우리는 소중해요 단원 52쪽)</p>	<p>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모두의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살펴봅시다.(2-4.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단원 52쪽)</p>
<p>우리 주변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2-5. 우리는 달라요 단원 66쪽)</p>	<p>우리는 서로 생김새, 피부색, 재능,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u>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u> 우리 사회에서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2-5.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단원 66쪽)</p>

한국 도덕 교과서 :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표 6> 한국과 프랑스 교과서 차별, 불관용 설명

한국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프랑스 '7. 타인 존중하기 : ㉞ 존중과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문화, 다양한 모습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사례 : 프랑스 이모부 결혼식, 뉴질랜드 손님의 마오리족 인사법 등)</li> <li>- 주사위 놀이판 속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의 사례(사투리 차별, 왼손잡이, 다문화 가정 학생 차별, 나이 많은 학생 차별 등)를 담아서 놀이하기</li> <li>-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려면 공정하게 대해야 함.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 알아보기</li> <li>- 성별, 생김새, 생활 방식 등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함</li> <li>- '선장'과 '문법학자'라는 직업과 학력 차이가 나는 사람들간의 이야기 속에서 문법학자의 불관용적인 태도와 우울감을 느끼고 이해한 후에, 교사의 발문 해결하기</li> <li>- 발문 :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점에서 문법학자는 불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요, 학급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등</li> </ul>

<표 6>과 같이 한국 도덕 교과서는 편견과 차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 보다는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판단하는 ‘공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한편 프랑스 교과서는 앞에서 설명한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을 더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와 발문을 이어나간다. 차별과 편견의 감정이 생기는 주요한 까닭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바르지 못한 마음 즉 ‘공정하지 않은 마음’이 더 근원적일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일까?

물론 불공정한 마음으로 인해 즉 평등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아서 생기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를 공정하게 다루면 차별이 안 생기는 것일까? 사람 사이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까? “자신과는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여,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여, 차별, 편견, 무관심으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이야기할 때 ‘affirmative action(차별 철폐 조치, 적극적 조치)’는 능력을 무시한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차별을 없애려는 ‘적극적 조치’가 더 공정하고 평등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정치인에 대한 할당제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입시 가산점 등은 개인과 개인을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 관점에서만 성립된다. 즉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공정성의 룰을 깨뜨려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편견과 혐오 가득한 차별로 변질되는 것은, 개인간의 차이를 공정하게 다루는 마음이 부족해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능력중심, 성취중심의 우월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국 교과서가 차별과 편견의 반대편에 ‘관용, 인정’의 가치가 아닌 ‘공정, 공평’의 가치를 두게 된 것은 왜일까? 존엄하게 태어났다는 사상으로서의 평등이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평등한 삶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실천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가치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의 정신이나 법 제도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자의 경우, 다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차별이 시정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정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불발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지금 필요한 정서와 감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7> 한국과 프랑스 교과서의 단원 마무리 서술

한국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프랑스 '7. 타인 존중하기 : ㉞ 존중과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li> <li>- 김치 이야기 : 김치 = 배추(중국) + 고추(남미) + 마늘(중앙아시아) * 마늘 : 단군신화(홍익인간)</li> <li>- 세계인권선언 :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서로 다르지만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를 가진 주인이 '집시 주차 금지'라는 팻말로 차별하는 사진 제시</li> <li>- 차별의 뜻 설명 : (직장, 거주, 학교 또는 활동 등록 등) 외모, 출신, 삶의 방식이나 선택을 이유로 어떤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li> <li>- 프랑스와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이의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별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한다.</li> </ul>

한국 교과서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하면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인용하여 왜 존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교과서는 존중의 반대어인 차별의 사례를 들면서 차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 교과서 공통적으로 사람의 권리, 인권의 핵심 요소인 '평등'의 개념을 끌어와서 이를 중심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조효제(2017년)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지평』에서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모든 인민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된 기준”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인권 달성은 네 가지 차원의 긍정적 의미를 들고 있다. 인권 달성의 네 가지 차원은 요구 자격, 향유, 자력화, 포용 등인데 그 가운데 ‘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권리가 실제로 향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주관적 인정에 의한 법적 요구 자격의 확보라는 차원 외에도, 상호 주관적 포용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용은 형식적 인정보다 인격적 관계의 설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사회심리적 차원의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를 더 잘 반영하는 개념이다. ... 나는 인권의 달성을 위해 ‘포용’의 차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불의와 차별과 모순이 때론 확정적이고 가시적인 인권침해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면서 종전의 견해를 수정했다.(49~50쪽)*

“수준 높은 민주 시민성이 전제될 때 인권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효제 교수는 위의 글에서처럼 요구 자격으로서의 권리 못지않게 사회심리적 차원의 ‘받아들임’ 즉 포용의 차원으로 비가시적이고 모호한 불의, 차별, 모순의 고통이 해결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용과 관용’이라는 덕목의 중요함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과서에서 존중해야 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떤 감수성과 시민성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가며 : 학생들의 삶과 현실에 기반한 논쟁적인 교과서**

이상으로 한국, 프랑스, 독일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서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로구청과 구로구 시민사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기반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발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에 기반한 소재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보완적인 자료와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성인들의 눈높이에서 가져온 소재, 내용, 주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재미있는 자극들이 온라인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삶에 터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하려면 구시대적인 콘텐츠를 과감하게 버리고 현실에서 제재를 끌어내는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학교 교과서는 연구, 집필, 발행 등의 시스템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현실의 논쟁적인 측면을 담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토론이 있는 수업, 논쟁적인 수업 그리하여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깨닫는 살아 있는 수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의 교과서들은 절차나 과정에서 정답이 보여지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것을 타인과 서로 논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과거와 다르게 한 가지 사회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왜 교과서만 한 가지 정답을 찾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12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배웠지만 아직도 우리는 타자(자연, 인간, 문화)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정체성만 내세우는 톨레랑스 정신이 부족함을 곳곳에서 인지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타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와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기계적 공정주의, 형식적 평등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리하여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교육을 받은 성인들까지 현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함양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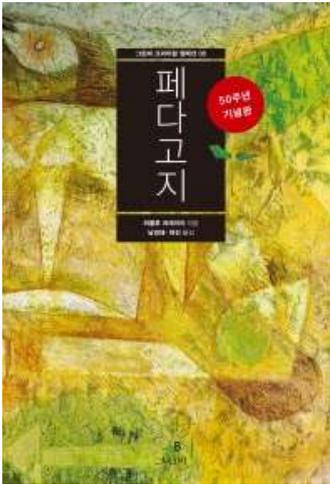
-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4학년」, 경기도 교육감 인정 교과서, 2019.3.1.
-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5~6학년」, 경기도 교육감 인정 교과서, 2019.3.1.
- 교육부&민주주의 연구소(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외(영·프·독) 초·중학교 교과서 비교분석 -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2021.3.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021년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외 교과서 분석 -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2021.7.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021년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외 교과서 분석 -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부록), 2021.7.
- 구로구 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9.29. 제정
- 조효제, 『인권의 지평 -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2016.3.
- 다음 백과 “톨레랑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40ha830a16>(검색일 : 2021.11.21.)

### 붙임 3.

#### 민주시민교육 추천 도서 10선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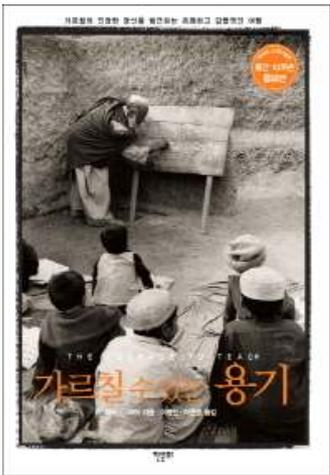
####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남경태·허진 옮김. 2018.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 그린비.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은 오래 되고도 새로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지닌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론인 ‘페다고지’는 우리 사회 교육활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은행저금식’ 교육을 넘어 ‘해방’을 향한 대화와 상호작용의 교육은 오늘날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관해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J. 파머 지음. 이종인·이은정. 2013.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가르침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여행. 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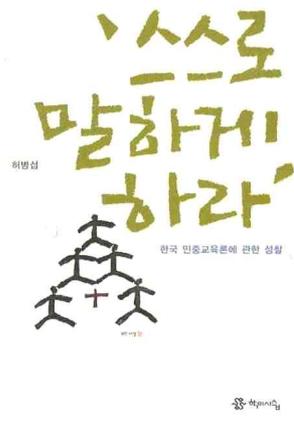
미국의 교육운동가인 파커 파머의 이 에세이집은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관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화와 구조를 넘어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형성해가는 경험에 기반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을 만들고 실행하는 교육활동가나 교사의 마음의 힘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 스스로 말하게 하라

허병섭 지음. 2009. 스스로 말하게 하라: 한국 민중교육론에 관한 성찰. 학이시습.

서울 성북 지역에서 민중선교와 운동에 헌신했던 허병섭이 활동경험에 기반해 쓴 책입니다. 민중들의 근본적인 해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의 지향은 책 제목인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고 싸워주지 말고, 스스로 말하고 나설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고 복돋우는 것이 교육활동가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외국의 사상과 이론, 경험을 많이 참조했는데, 이 책은 우리 스스로의 교육활동론 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스키타 아쓰시 지음. 임경택 옮김. 2016.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공부. 사계절.

정치라는 주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건너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풍토로 인해 정치라는 주제는 기피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점점 더 정치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존의 정치교육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평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보통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정치의 핵심적인 주제어들인 ‘결정’, ‘대표’, ‘토론’, ‘권력’, ‘자유’, ‘사회’, ‘한계’, ‘거리’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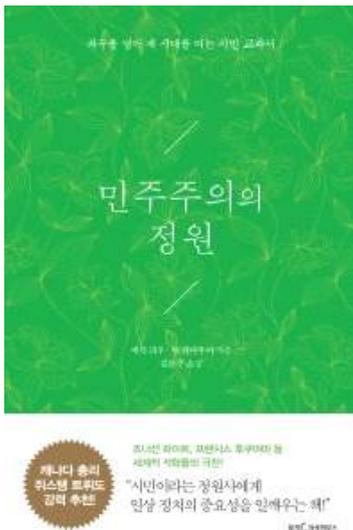
## 지역사회 시민교육론



김창엽 지음. 2021. 시민이 활동으로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시민 교육론: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공동체.

그 자신이 시민단체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했고, 지금은 평생 교육과 시민교육 연구자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 사회 교육활동의 흐름과 동향, 그리고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은 멀게는 일제강점기로부터, 민주화운동 시기, 시민사회 활성화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활동의 흐름과 동향을 정리한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귀한 책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모든 시기와 영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민주화 이후 시기 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 민주주의의 정원



에릭 리우·닉 하나우어 지음. 2017. 김문주 옮김. 민주주의의 정원: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

“무엇보다도 정원사는 자신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원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올바른 관점을 쉽게, 그리고 마음의 울림이 있는 언어로 전달합니다. 유권자를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에 비유하면서, 합리적인 인간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세계관, 즉 ‘기계형 지성’으로부터 비합리적이지만 선의를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에 희망을 거는 ‘정원형 지성’으로의 시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끄적끄적 튀어나온 열아홉 빛깔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강원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2021. 끄적끄적 튀어나온 열아홉 빛깔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더피움.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여전하고, 교육계에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탓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것이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에 도전과 개혁의 정신으로 추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

은 19명의 강원 지역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성찰을 실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이국운 지음. 2017.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헌법 묵상, 제1조. 김영사.

헌법은 시민들의 가장 큰 약속이자 규범이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헌법을 다루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책은 헌법을 딱딱하게 다루기보다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천명하는 정신과 가치들을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라 보입니다. 특히 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의 구절을 통해 헌법의 주어는 국가가 아닌 사람, 즉 민

(民)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새롭게 들립니다.

○ 발행일 : 1판 1쇄 2021년 12월

○ 문의

[서울시 구로구청 협치정책팀]

- 전화 : 02-860-2187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 홈페이지: [www.guro.go.kr](http://www.guro.go.kr)

이 보고서는 구로 민주시민교육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구로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